

기도

1.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2. 내가 삶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눠주세요.

신앙

이사야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는 '여호수아', 혹은 신약의 '예수'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당시 유다는 앓수르와 애굽이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정치,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영적 부패가 심각했다(사 1:2-20).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유다의 유일한 소망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이사야는 특별히 메시아의 초림과 수난과 영광, 그분의 통치와 종말의 때의 현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교회)의 완성된 모습 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자세한 예언을 전했다.



넘치는 은혜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넘치는 은혜

이사야 43장 1-7절 (찬15장, 391장)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나 이제’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결과로 심판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이들을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1절a). 그리고 그들을 ‘내 것이라’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1절b).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2-4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2-3절). 이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물과 불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스와 스바를 고레스 왕에게 넘겨 주어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보내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4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요일4:10). 이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의 세계로 더욱 깊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5-7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5-6절). 이는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돌아오도록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대로 죄에 물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7절).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를 만드셨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고, 실망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베풀어진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 하루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